

2024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년 12월 30일(월) 11:00

2. 장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위원

- **참석위원** : 정석재 기획처장(위원장)
최혜정 기획예산차장
김준세 총학생회장
김시은 전자정보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오세빈 일반대학원 화학과
배성봉 공인회계사
- **불참위원** : 허돈 전기공학과 교수

4. 회의안건 :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

5. 회의내용

- 총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4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1시에 개최하다.
- 위원장이 회의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 배경

- 위원장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에 앞서 등록금 결정과 관련된 근거 법령 및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에 관하여 설명하다.
위원장은 등록금 관련 근거 법령인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됨을 설명하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인 5.49%이며 평균 등록금 산출 방식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을 구분 없이 산출함을 설명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장)
간서명		최혜정	

-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관련 교내장학금 기준안을 설명하다.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이라는 대학의 자체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임을 설명하다.

2025학년도의 경우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은 유지되나 교내장학금 관련 조건은 일부 완화하여 2024학년도 교내장학금 규모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시적 허용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 배경에 대하여 대학의 재정 현황을 설명하다.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영향으로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 및 교육부대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며 다양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수주를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설명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및 보다 나은 연구환경과 교육을 위한 연구학생경비 투자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나.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등록금 인상(안) 논의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2024학년도 광운대학교 연간 평균 등록금은 7,904,685원이며 앞서 설명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인 5.49%를 적용하면 최대 8,338,652원까지 인상 가능함을 설명하다.

그러나 2025학년도에는 신입생 정원의 408명을 자율전공학부로 모집하게 되어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 책정에 따른 자연 증가분 발생을 고려해야하며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을 공학계열로 배정 시 인상률은 4.75%임을 설명하다.

다.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등록금 인상(안) 논의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위원장은 외국인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비용 증가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을 설명하며 서울 소재 타대학에 비해 등록금 동결 기간이 길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다.

타 대학에 비해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이 낮을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된 점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학부(외국인) 등록금 5% 인상(안)을 설명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장)
간서명			

라.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내국인 및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 논의

- 위원장이 2025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위원장은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왔으며 최근 입시 홍보 및 학생 유치 등의 대학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설명하다.
위원장은 대학원의 경우 연구조교장학금을 비롯한 장학금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과 타대학의 대학원 등록금 수준 및 인상률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록금 3% 인상(안)을 설명하다.

마.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

- 위원장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준세 위원은 교내장학금 지급 규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다.
- 위원장은 현재 교내장학금 지급 규모는 약 100억원임을 설명하다.
- 김준세 위원은 교육부에서 완화된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을 본교 상황에 적용하였을 때 감축될 수 있는 장학금 규모가 10억원 정도가 맞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은 김준세 위원이 이해한 부분이 맞다고 설명하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교내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장학금이며 30%는 가계곤란장학금, 이후 순위로 봉사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교내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 및 독려를 목적으로 지급되는만큼 교내장학금을 감축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님을 설명하다.
- 김준세 위원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위하여 제시한 교내장학금 완화 기준은 학생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우며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가정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모만큼 교비로 보전이 된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액 총 규모는 감축될 수 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위원장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교내장학금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은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장학금 및 봉사장학금임을 감안하였을 때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며 학생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하다.
- 김준세 위원은 2025학년도 학부(내국인) 등록금 인상(안)인 4.75%를 인상하였을 때 예상되는 수입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다.
- 최혜정 위원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인상 시 등록금 수입은 약 12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장)
간서명			

- 위원장은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해당 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원칙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설명하다.
- 김준세 위원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진행할 경우 인상분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상분 사용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김준세 위원은 학부(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직원이 배석하여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인상분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위원장은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시 관련 교직원을 배석하게 할 것이며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시에는 유관 부서인 대외국제처와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김준세 위원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는 등록금 의존율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위원장은 대학의 수입원은 크게 등록금수입과 비등록금수입으로 구분되며 현재 광운대학교의 비등록금 수입원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외에 정보과학교육원 단기수강료 수입과 동해문화예술관 수입이 있음을 설명하다.
최근 4년제 대학이 늘어나면서 학점은행제의 장점이 퇴색되어 정보과학교육원 단기수강료 수입도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등록금 의존율이 증가하였음을 부연하다. 위원장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학교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발전기금 유치 등을 통하여 등록금 의존율을 5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 김시온 위원은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대부분 공학계열 학과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에서는 전임교원 수·수업의 질·실험실습비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최근 신설된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경우 학생들의 사물함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입학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가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하다.
김시온 위원은 등록금을 동결해온 지난 16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금 인상의 경우 2024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 과년도 인상률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장)
간서명			

- 김시온 위원은 등록금 인상보다 등록금 의존율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며 학령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개진하다.
- 위원장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비등록금 수입원 중 하나인 동해문화예술관 대관료를 조금씩 인상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재 등 운영 수입 확대를 위한 한계점이 존재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다.
- 김시온 위원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인상분을 활용해 줄 것을 학교에 요청하다.
- 오세빈 위원은 학교에서 설명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등록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실험실 기자재를 비롯하여 노후된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배성봉 위원은 학생 대표 위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바람직하다고 개진하다.
- 위원장은 2025년 1월 6일에 차기 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가 진행되어 있으며 간담회에서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설명하다.
- 김준세 위원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지난 16년간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시설유지비 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점, 대학의 수입원이 한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현 상황에 공감하고 있음을 개진하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분을 사용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상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하다.
- 위원장은 김준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TF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계열별 혹은 단과대학별로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없는지 확인하다.

6. 폐회

위원장은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 논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원장	위원(기획예산차장)	위원(총학생회장)
간서명			

2024학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년 12월 30일(월) 11:00

2. 장소 : 광운대학교 화도관 대회의실(202-1호)

이상의 회의내용을 확인함

위원장 기획처장

정석재 (인/서명)

위원 전자정보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허돈 (인/서명) -불참

위원 공인회계사

배성봉 (인/서명)

위원 기획예산차장

최혜정 (인/서명)

위원 총학생회장

김준세 (인/서명)

위원 전자정보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시은 (인/서명)

위원 일반대학원 화학과

오세빈 (인/서명)